

#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중 파업 “공멸”

## 노동조합, 4월1일 전면파업 선언 ... 경영정상화 차질 법정관리 불가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4월1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회사 측이 워크아웃 중 파업은 공멸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상황에 놓인 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노사가 함께 생존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자리였음에도 노조는 이를 망각하고 파업을 선택해 노사 공멸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3월25일 회사가 최종 제안한 기본급 15%에 상여금 200% 삭감을 통한 인력 구조조정 철회안은 과도했던 인건비 구조를 개선해 동종업계 수준의 제조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재 수급 불가로 인해 조만간 공장 전체의 가동중단이 불가피하고 채권단과의 기업개선약정(MOU) 체결 시점이 지연됨에 따라 워크아웃을 통한 회사의 경영정상화 일정도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채권단이 워크아웃 대신 회사의 법정관리를 선택하게 되는 극단적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파업이 노사의 공멸로 가는 길임을 인식하고, 신속히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지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3월30일 오전 제20차 본교섭을 갖고 임금 삭감 폭과 정리해고 철회 등 쟁점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노조는 교섭 직후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31>